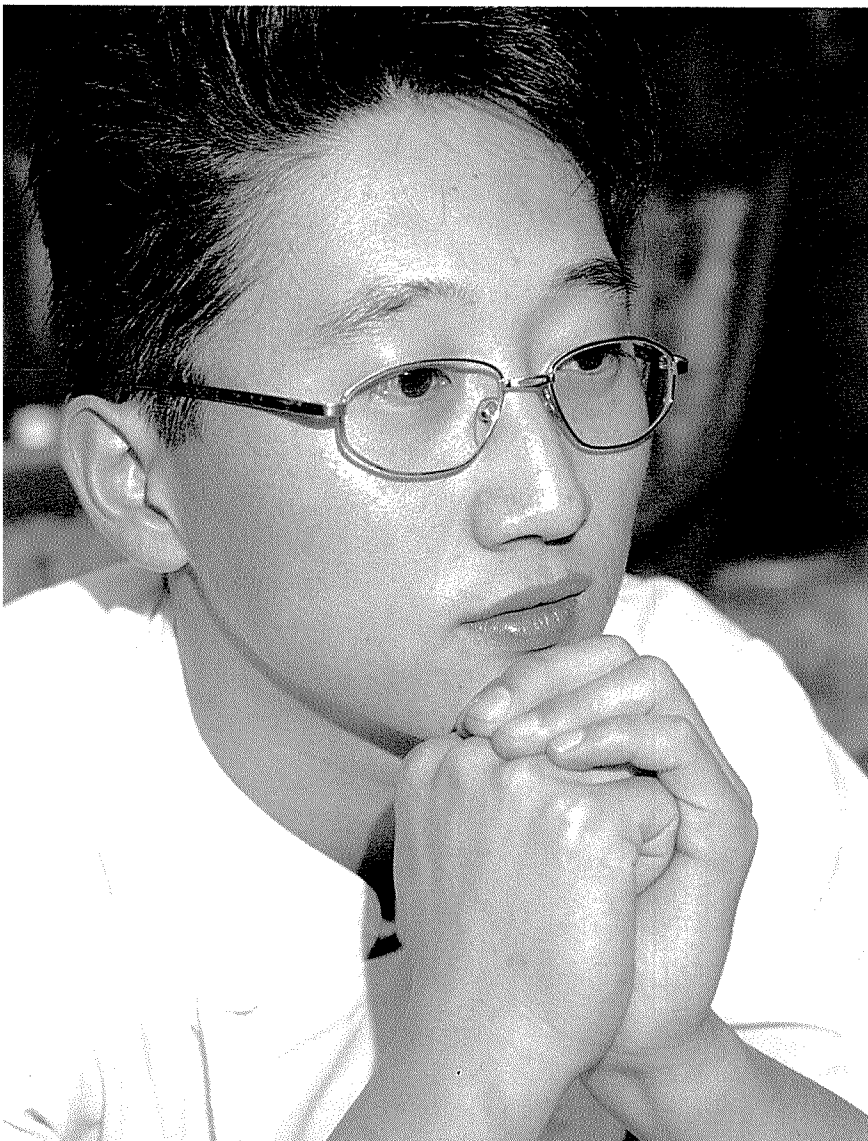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비로소 제과기술의 깊이와 넓이 깨달아”

인생에 있어 목표를 갖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뛰어든 사람은 용기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업계에도 주변의 자연스런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새로 시작한다는 기본으로 인생을 사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의 삶과 꿈을 들어봤다.



얼마전 한창 유행했던 가요 중에 ‘돈 싫어 명예 싫어...’로 시작하는 노래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을 사는 우리들 중에서 가사처럼 돈싫어하고 명예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특히 인생의 성공여부가 본인에게 있고 있는 물질적 재산으로 평가받는 요즘세대에서.

우리 업계에도 이런 세태와 무관하지 않은 듯 어느 때부터인가 ‘돈’ 때문에 잘 다니고 있던 직장을 옮기는 기술자들이 눈에 띈다. 힘들게 제과기술을 배웠던 선배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 걱정도 된다. 그래서 돈에 얽매이기 보다는 기술인으로서 우선 기술을 배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반가운 마음이 든다. 특히 그 사람이 아직은 나이도 어린 젊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능력이 물질적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

리치몬드제과점에 근무하는 양희승 씨와 강창걸 씨도 우리들을 기분 좋게 하는 사람들이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29살, 28살의 젊은이지만 이들의 기술 경력이 이미 5년 이상을 넘어선 고참 기술자라면 이들의 의지와 생각이 무언가 남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된다.

양희승 씨와 강창걸 씨는 서로 근무하는 곳이 다르지만 리치몬드제과점에서도 소문난 단짝친구다.

현재 차장인 양희승 씨가 근무하는 곳은 서교동 리치몬드과자점. 그는 이곳에서 빵파트를 맡고 있다. 반면 대리인 강희승 씨는 성산동에서 과자파트에서 근무하고 있다.

“서로 근무하는 곳이 틀리지만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어울리는 편입니다. 주로 만나면 무엇을 하냐구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를 합니다. 거창하게 인생에 대해서도 말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점도 털어 놓고, 또 가끔은 한강 시민공원에 가서 맥주를 마시고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생활은 요즘 젊은 이들과 한치도 다를 바가 없다.

양희승 씨와 강창걸 씨가 서로를 알게 된 것은 이곳 리치몬드제과점에 근무하면서부터다.

강창걸 씨는 약 20개월 전에 리치몬드과자점에 입사했다. 처음 시작은 원제과에서. 그곳에서 4년 정도 기술을 배웠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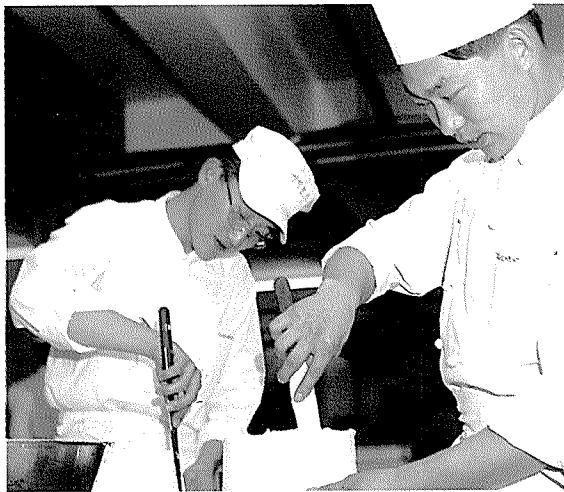
“10명 정도가 일하는 제과점이었으니까 대형제과점

◀ 강창걸 씨는 공장 책임자를 맡고 있다가 스스로에게 한계를 느껴 다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배합표만 가지고 있는 그대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진짜 기술이 아니기에 스스로가 제품을 응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술을 배울 생각이다.

이었죠. 그곳에서 부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조금 더 있다가 기술자로 뛰자'는 생각을 하던 때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곳을 그만둔 후에는 '기술자'로 뛰었다. 3명 정도가 일하는 곳에서 2년 넘게 공장장 생활을 했다. 제과 기술자들의 평균적이고 모범적(?)인 길을 그도 따라간 셈이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의 길을 벗어나는 행동을 했다.

"공장장 생활을 하면서 제자신의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공장장이라면 단순히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기획해 내고 만들 수 있는 능력,



공장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 다방면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제자신이 만족스럽지가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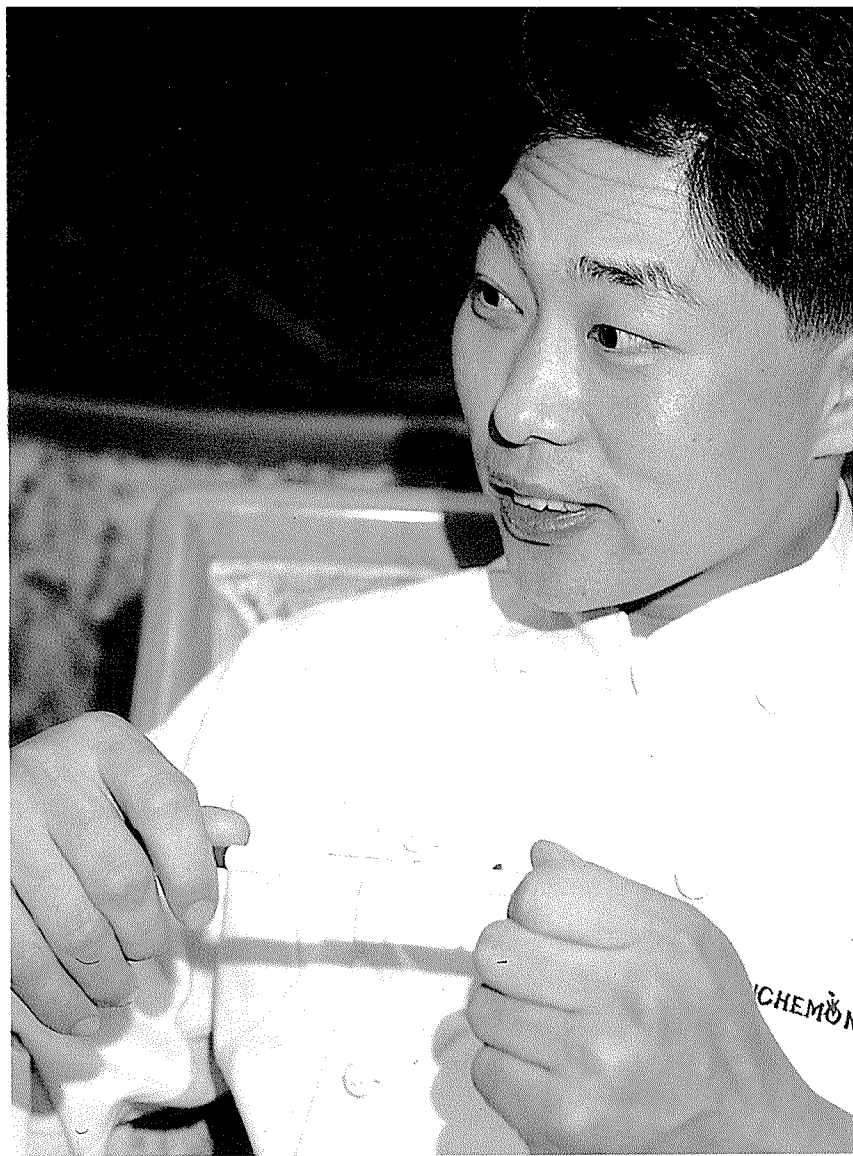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가져왔던 자신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반면 양희승 씨는 강창걸 씨와는 조금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저는 기술을 배운 것은 서울이지만 지방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년 기술자 생활을 하면서 문득 회의가 들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을 걸고 이것을 계속 해야할까란 회의였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반죽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꽤 긴 방향을 마치고 그는 제과업에 다시 뛰어 들었다. 무엇을 하든지 적어도 10년 이상은 필요할텐데 이왕이면 배운 도둑질을 하는 편이 좋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는 원제과에 입사를 했다. 그곳에서 그는 나기학 상무를 만났고 나 상무와의 인연을 리치몬드제과점까지 이어왔다.

그가 공장 책임자로 나가지 않고 계속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한 이유는 소박하다. 10년 후쯤에 자신이 제



양희승 & 강창걸

평범한 인생행로를 거부한

과점을 직접 운영하더라도 몇가지 기술정도는 써먹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배워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서다.

각자의 인생목표로 리치몬드제과점에 입사를 한 두사람은 한 직장에서도 함께 생활을 하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있다.

강창걸 씨가 공장 책임자 생활을 그만두고 리치몬드제과점에 입사를 했을 때는 말리는 친구들이 많았다. 과연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을까란 걱정이었다.

"친구들은 너 정도면 충분히 공장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엇하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느냐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또 그곳으로 가면 지금받고 있는 월급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현실적 우

▲양희승 씨는 오랜 방황끝에 제과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10년 후에 내가 제과점을 직접 경영한다면 써먹을 것이 있어야하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다.

◀목표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적 고민도 많다. 결혼 후에도 내뚝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다른 친구들은 모두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뛰나는 생각까지.

려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일이 힘들어 질꺼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도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괜한 짓을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공장 생활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느꼈던 한계를 지금 극복하지 못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용기를 갖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배합 표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실력이 오히려 진짜 실력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직장으로 리치몬드제과점을 택했다.

“이곳 저곳을 알아보면서 제일 낯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에 가족을 모두 남겨두고 혼자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나기학 상무님도 계셨고. 그분에게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결심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당시 그가 리치몬드제과점에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모두들 부러워 한다. 자기들도 다시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면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지 않았다는 확인을 한다.

공장 생활을 하면서 한계 느껴 기술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고 나 상무 찾아가

그러나 이들도 가끔은 조급함을 느낄 때가 있다.

언제부터인지 4~5년 기술배우고 공장 생활 3년 정도하고 30세 초반에 내 점포를 갖는다는 것이 우리 업계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은 추세를 그들도 느끼기 때문이다.

함께 기술을 배웠던 그들 나이의 친구들이 이제는 공장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점포를 오픈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나는’이라는 질문이 스스로에게도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변의 이런 것, 저런 것 신경쓰기에는 그들의 나이가 아직은 젊고 오히려 지금은 도전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간다.

강창걸 씨는 처음 리치몬드제과점에 올 때 3~4년 정도 기술을 배울 작정으로 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 앞선다. 이제는 언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시간을 정하기 보다는 제과기술의 깊이를 충분히 느끼고 배운 후가 자신이 독립할 때란 생각만 가지고 있다.

양희승 씨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그는 처음부터 얼마 동안만 있어야겠다는 한계를 갖는 곳이라면 그곳은 자

신이 품담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곳을 그만두는 날이 퇴직하는 날이지 않겠냐고 자신의 생각을 조용히 밝혔다.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 승부를 걸기보다는 평생을 통해 꾸준히 변하는 것이 성공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과점을 하더라도 처음 매상은 별볼일 없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하는 점포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기술외에도 이런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게 됐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가 만족할 때까지 최선

그러나 이들도 앞날에 확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자들 중에서 결혼을 하면 의지가 꺾이거나 목표를 수정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우선 혼자 아니고 책임을 져야 할 가족도 생기기 때문이죠. 지금은 이렇지만 저희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변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결혼외에도 금전적인 문제, 주변 여건의 변화 등 앞으로 닥칠 미래가 자신들의 지금 결심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했다.

아주 평범하고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그들의 생각을 들으며 이들도 다른 젊은이들과 똑같구나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들은 나이에 비해 늦은 출발을 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또 이들은 가장 빠른 출발을 한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생각인 순간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더 들어 후회를 하고 적어도 망설이지는 않을테니 말이다. ☑

(글 / 김주희)

▲ 나기학 상무는 그들이 존경하는 선배다. 30대 후반에 기술을 배우기 위해 가족을 남겨두고 일본으로 떠난 상무님의 삶의 자세가 젊은 그들에게는 감동적인 드라마다.